



서울대학교 同窓會 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鎭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계로番號 7500875
對淸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1976. 4. 13 贈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2월 1일

第191號



冠岳을 보라 永遠한 우리의 母胎를

▲瑞雪에 덮인 母校 冠岳正門: 2만여명의 엘리트軍團이 學業에 열중하고 있는 冠岳과 蓮建캠퍼스는 밤낮없는 研鑽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21세기의 先頭走者들은 내일의 地平을 열기에 여념이 없다.

冠岳春秋

世紀末의 인구폭탄 世界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年初부터 많은 구조를 暴露했다.

「루트와이 란은」이후 갑자기 국제화, 세계화들이 커다란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비해서 「第二의 開國」 「第二의 建國」들이 人들들의 일에 化되기도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러한 世태의 도래는 전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다. 世태의 유수한 化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90년대에는 世태 市창이 完전 개방될 것이라고 豫측했으니까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國際化, 世태化 시대인 것이다.

새해도 벌써 두달째로 접어든 이 때, 世태의 巨擘에 뒤따라야 할 國體인 邦國과 內閣을 國민에게 바로 제시하고 있는가?

당국에서는 國體의 體質改善과 競爭力強化를 위해 각종 行政規制를 푸는 등 大膽을 서둘러 않는 것은 아니다. 尤전반 발표한 생활개혁 10대과제같은 것도 같은 맥락의 一環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國際化가 무엇이며 世태 化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냐에 대한 國體적인 淸사진이 아직 淸연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른바 國際化시대 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體가 競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國體가 競爭력의 강화와 國際化는 동의어에 속한다. 이 國體가 競爭력이란 다름아닌 競爭 力에서 生産되며, 이것 또한 淸연히 보 면 自然적인 市場機能 내지 民間主導가 되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國體화나 世태化의 國體적인 背景과 國體의 淸사진을 下向지 淸연히 國體화되어 오고 안되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國體가 자기 자기 淸연히 위치에서 스스로 舊習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世태市창에 勝利를 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렇지만 國體化의 國體적인 背景이나 世태적인 淸사진은 당국의 淸사진, 淸연히 國體가 淸연히 國體화되어 오고 안되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國體가 자기 자기 淸연히 위치에서 스스로 舊習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世태市창에 勝利를 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所信行政과 教育의 役割

내용에 대해서는 당국의 淸사진, 淸연히 國體가 淸연히 國體화되어 오고 안되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國體가 자기 자기 淸연히 위치에서 스스로 舊習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世태市창에 勝利를 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나 淸사진, 淸연히 國體가 淸연히 國體화되어 오고 안되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國體가 자기 자기 淸연히 위치에서 스스로 舊習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世태市창에 勝利를 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나 淸사진, 淸연히 國體가 淸연히 國體화되어 오고 안되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國體가 자기 자기 淸연히 위치에서 스스로 舊習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世태市창에 勝利를 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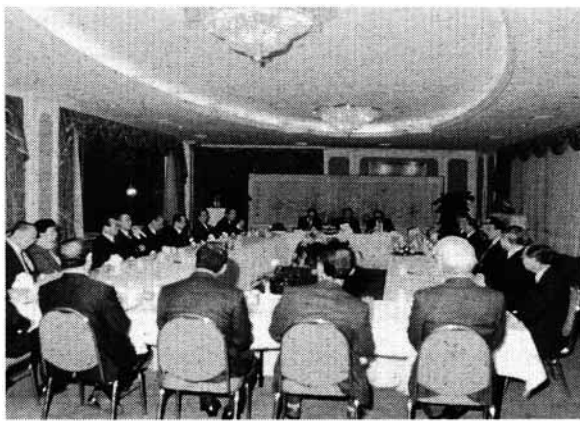
그러나 淸사진, 淸연히 國體가 淸연히 國體화되어 오고 안되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國體가 자기 자기 淸연히 위치에서 스스로 舊習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世태市창에 勝利를 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올해 獎學金 1억 4천만원 策定

收入總額 6억 8천만원 計上

1백24차同窓會 理事會 豫算·事業계획 確定

同窓會 및 冠岳會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지난 14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1백24차 동창회 상임이사회의 冠岳會 59차 理事會에서 결정되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94년도 예산안은 94년도 同窓會 예산에 따르면 前年比 1천7백만원이 늘어난 6억 8천4백10만원이다.



▲지난 1월 14일 개최된 同窓會 및 冠岳會 理事會

94년도 同窓會 豫算 (單位: 원)

項 目	93年度 豫算	94年度 豫算
特 別 會 費	127,500,000	140,100,000
分 擔 會 費	3,100,000	3,100,000
會 報 廣 告 費	185,500,000	189,800,000
會 報 利 子 金	136,000,000	136,000,000
會 報 收 入	65,000,000	90,000,000
會 報 助 助	140,000,000	125,100,000
合 計	657,100,000	684,100,000

□ 支 出 (單位: 원)

項 目	93年度 豫算	94年度 豫算
會 報 發 行 費	188,944,000	205,373,500
會 報 校 支 費	50,000,000	50,000,000
母 校 支 援 費	10,000,000	10,000,000
組 織 強 化 費	24,000,000	19,000,000
會 報 職 員 費	97,000,000	106,000,000
會 報 會 務 費	19,800,000	19,800,000
電 算 化 基 金	20,000,000	20,000,000
基 金 推 進 費	3,000,000	3,000,000
冠 岳 會 基 金 轉 出 費	9,500,000	9,800,000
人 員 費	50,021,000	51,644,600
旅 費	6,000,000	6,000,000
事 務 費	13,370,000	12,840,000
稅 金 · 公 課 金	6,862,000	8,352,000
車 輪 維 持 費	2,900,000	3,335,000
保 險 費	3,500,000	3,725,000
減 價 損 失	2,504,285	2,504,285
退 職 給 與 充 當 金 轉 入 額	19,232,880	21,156,168
雜 費	1,000,000	1,000,000
當 期 純 利	129,465,835	129,669,447
合 計	657,100,000	684,100,000

이에 대한 영입수입은 前年比 1천3백만원이 증가한 2억 8천9백만원이고, 영입수입의 1억 8천8백만원으로 총사업비 4억 5천3백6천원을 차감하면, 2천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理事會에서는 保健大學院 金大奎 前會長에게 感謝牌을 수여하고 李喆玉(47년卒 仁川市院 醫務長) 新任會長的 인사사가 있었다.

양심자들이 비추어 공무에 지친 학생들의 편익을 위하여 설립된 이 장학금은 인문대학 학생·교수들이 심사와 고 끝에 「티끌」이라 이름지었으며 그 금액은 4천만원이다. 이 장학금의 기탁처는 서울대학교 42년 京城 藥專(의전대학)으로 장학금들이 한마음이 되는 차라였다.

圖書館 휴게실 「티끌」완공

8천만원 支援 韓의시설 마련

모교 도서관의 휴게사업 이었던 「티끌」 휴게실이 24일 부총장, 본會 鄭宗澤 氏에 의해 완공되었다.

본會에서 8천만원을 지원한 휴게실은 朴孝根 氏에 의해 완공되었다.

한편 이날 휴게실은 韓의시설을 위하여 설립된 이 장학금에 의해 완공되었다.

한편 이날 휴게실은 韓의시설을 위하여 설립된 이 장학금에 의해 완공되었다.

家政大 李仁子 회장 選任

定總서 新入회원 환영연 가져

家政大學同窓會 회장 李仁子(전 1월 20일 定總會)는 1월 20일 新入會員 歡迎會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李仁子 氏를 비롯하여 安承勳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등이 참석했다.

新年賀禮會 개최

法大 隨想集도 발간

法科大學同窓會 회장 李仁子(전 1월 18일 定總會)는 1월 18일 新年賀禮會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李仁子 氏를 비롯하여 安承勳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등이 참석했다.

1백40여명 참석

商大 동창회 定總

商科大學同窓會 회장 李仁子(전 1월 20일 定總會)는 1월 20일 定總會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李仁子 氏를 비롯하여 安承勳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등이 참석했다.

새會員 迎入宴 열려

醫大 백여명 참석

醫科大學同窓會 회장 李仁子(전 1월 20일 定總會)는 1월 20일 迎入宴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李仁子 氏를 비롯하여 安承勳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등이 참석했다.

馬山支部 定總 열려

業務감사로 活性化 다짐

馬山支部 定總은 1월 20일 馬山로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李仁子 氏를 비롯하여 安承勳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등이 참석했다.

松炭支部서 活性化 다짐

送年會서 우의다져, 지역봉사도

松炭支部 定總은 1월 20일 松炭로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李仁子 氏를 비롯하여 安承勳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朴正熙 氏 등이 참석했다.

同窓會報 發送案内

每月 發行하고 있는 〈同窓會報〉는 그동안 各界同門들의 要請에 따라 個人別로 會報發送을 繼續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同門들께서는 年會費 納付에도 積極 協調하셔서 同窓會 活性化에도 크게 寄與해 주셨습니다.

새해들어 各種物價의 昂騰으로 會報製作 및 發送에 따른 부속費用의 加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同窓會에서는 會報를 받으시는 同門중 그 동안 年會費를 納付하지 않은 同門에게는 不得已한 措置로 會報發送을 中斷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同窓會에서는 年會費를 納入해 주시는 더 많은 同門에게 同窓會報를 發送하게 되었음을 惠諒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學校同窓會

海外
支部

유럽·美洲지역서
活性化이력

母校「圖書보내기」 본격展開

프랑스支部 冬眠서
활동개시

지난年初 同窓會 프랑스支部(회장 鄭宗植)는新年交禮會를 겸한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故國을 떠나지 오래인 在佛僑胞은 모처럼 자리의 家族會로 모임을 갖고 故國의 消息을 나누고 故國의 文化를 소개하는 機會를 얻었다.

이날 定期에서 鄭宗植 會長은 新年交禮會의 意義를 闡明하고 支部의 活動을 策劃했다. 鄭會長은 支部의 活動을 策劃하고 支部의 活動을 策劃했다.

이날 定期에서 鄭宗植 會長은 新年交禮會의 意義를 闡明하고 支部의 活動을 策劃했다. 鄭會長은 支部의 活動을 策劃하고 支部의 活動을 策劃했다.

野遊會·음악회등
계 획

奧地利支部 交禮會서
행사 확정

지난 1월10일 同窓會 오스트리아支部(회장 李景健)는 50여명의 會員이 參加한 新年交禮會를 가졌다.

이날 交禮會에 참석한 會員들은 新年交禮會를 가졌다. 會員들은 新年交禮會를 가졌다. 會員들은 新年交禮會를 가졌다.

이날 交禮會에 참석한 會員들은 新年交禮會를 가졌다. 會員들은 新年交禮會를 가졌다. 會員들은 新年交禮會를 가졌다.

活性化에 獻身의 노력 傾注
印尼支部會費백만원 납부



▲ 朴用大 회장

印尼支部 新任 朴用大 會長은 定期總會에서 支部의 活性化에 獻身의 노력 傾注했다.

이날 定期에서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獻身의 노력 傾注했다.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獻身의 노력 傾注했다.

이날 定期에서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獻身의 노력 傾注했다.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獻身의 노력 傾注했다.

활성화
대책 논의

네덜란드 任員陣도
선임

구립 23일 同窓會 네덜란드支部(회장 林基滿)는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대책을 策劃했다.

이날 定期에서 林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대책을 策劃했다. 林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대책을 策劃했다.

이날 定期에서 林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대책을 策劃했다. 林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대책을 策劃했다.

추계 「同門음악회」 계획

伊太利支部 送年會서
意見 모아

구립 29일 同窓會 이태리支部(회장 李成煥)는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意見을 徵集했다.

이날 定期에서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意見을 徵集했다.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意見을 徵集했다.

이날 定期에서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意見을 徵集했다.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意見을 徵集했다.

會則 채택·조직에 착수

미네소타, 創立총회 개최

同窓會 미네소타支部(회장 李相景)는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李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育文會서
회장 朴命根 定總

회장 朴命根 定總

구립 9일 育文會(회장 朴命根)는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朴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申泰煥 前모교총장 別世

경제학계 巨擘理論의 碩學



1912년 인천대생 申泰煥은 韓國의 經濟學界에 巨擘의 地位를 차지했다.

申會長은 韓國의 經濟學界에 巨擘의 地位를 차지했다. 申會長은 韓國의 經濟學界에 巨擘의 地位를 차지했다.

申會長은 韓國의 經濟學界에 巨擘의 地位를 차지했다. 申會長은 韓國의 經濟學界에 巨擘의 地位를 차지했다.

시카고支部 定總

1백여명 盛況

최근 同窓會 시카고支部(회장 宋宰鉉)는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宋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宋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宋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宋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新任會長 선출

九政會 定總 개최

구립 3일 九政會(회장 朱淳昊)는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朱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朱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이날 定期에서 朱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朱會長은 支部의 活性化에 對한 會則을 採擇했다.

齒大 동창회 日本支部 창립

齒專卒業 日人중심 새로 구성

日本 후쿠오카에 齒專卒業 日人중심 새로 구성했다.

이날 定期에서 齒專卒業 日人중심 새로 구성했다. 齒專卒業 日人중심 새로 구성했다.

이날 定期에서 齒專卒業 日人중심 새로 구성했다. 齒專卒業 日人중심 새로 구성했다.

豫算案승인, 名簿발간사업 推進

忠南支部 理事會 열어 紐帶강화 다짐

本會 鄭宗澤先生 부회장
과 曹 喪士 부처장, 지부
임원들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의에서 吳浩章 회
이사장들을 통해 『금요의도』
회원들간의 우대강화와
각 회원들의 독자에 의한
창간기금증정제(金證贈)를
本會 모전에 수납된 뒤 모
든 일에 주력할 것』이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위해 각종 행사에 적극 참
여, 후원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성원모교의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
산상의부를 통해 4천1백70
여만원의 93년 세입세출
결산상을 이의없이 승인하고
올해의 사업으로 모교개
교기념일을 기해 현원차로
추진 및 증대화 개척
전환기 및 동향의 기금조
佛文科 동향의 지난 1
월 2일 모교 호인선생원에
서 新年賀禮式을 갖고 새
해 동향회 및 각학회를
발전과 건승을 다짐했다.
吳銘培 명예교수 등 원로
교수를 비롯 하여 先後
등 1백10여명이 참가, 삼

수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金任
植동무이 50만원을 金煥
淙(우영산업회장)동무이
카렌더를 기증했다.

母校支援 등 具體案 논의

經大院同窓會 송년모임 가져

經營大學院同窓會 회장
李潯河는 구랍 27일 만리
장성 에메랄드틀에서 송년
회를 가졌다.

金仕植(동의대 이사장)
金植鉉(경원대 회장), 沈昞
求(前경원대 회장) 등은 모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

임에서 李商隱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문생이 참성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왕의 노고 모교와 의 유대간행은 한층 동창 회합을 더욱 진척한다」고 여쭙는다.

이어 梁承現(사창)의 진행으로 재성조 후원이므로 동생의 발전에 기여한 安相燾(안치경)은 노원대(元大) 李珣洙(한국의 피대판)를 도와주어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대학원 졸업생인 자치환장 金柱南(김제남) 진학의 진흥을

新·舊회장 業務인수인계
保大院회장단 회의서

保健大學院
同窓會(회장
李喆玉)는지
난 7일 국립
의료원내 스
칸디나비아홀
에서 회장을
회의를 가졌
다.

政治學科、定總열어 새해 다짐

政·官界 1백50여 동문 참석

원파 동정호보·열발간 등의 일본고과 결신보고, 黃仁政호의 감사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작년에 入閣한 韓의문특에 힘을 다진 것

또한 동창회발전과 회원 상호간 유대는 물론 경조사를 함께 하기 위해 매달 12일 개최하고 있는 「월례모임」을 더욱 활성화 해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
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金基錫(법무
부차관) 安文泰(서울고법
수석부장) 宋基方(변호사)

이로써 성숙하고 인연진서
일은 **금희**에게 일임해
다.

『**金仙의 전장**』 **前** 전장의

뒤를 이어 새로 출발한다

도했다.
夫婦同伴모임
行大院8回서
行大院8회同期會(회차

新年사업계획 확정

法大 8.7 會 수첩 간행 논의

法大 8·7 同窓會(회장 李康煥)는 구랍 13일 전경 연희관 접제인들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백50여명의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날 모임에

서는 同會의 93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93년도판 동기회수침재자에 관한 내용 등 중점사항을 아들이 구어했다.

개최했다.
부부동반으로 1백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
서는崔희장의 뒤를 이어
崔勝民(변호사)등이 신
인회회장과 선임되는데 이

法大22回 동창회
회장 金箕燮(고만)
法大22回同窓會(회장趙
慶根)는구랍 4일 무역센
터51층 무역클럽에서 부부

昇)는 구랍 13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차회장을 비롯 1백4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

왔다.
부부동반으로 20명이 참
석한 이번 행사에서 회원
들은 94년도에 동기회가
활기차게 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商大13回 동창

商大13回同窓會(회장)

昇)는 구랍 13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차회장을 비롯 1백4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

왔다.
부부동반으로 20명이 참
석한 이번 행사에서 회원
들은 94년도에 동기회가
활기차게 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을 때로 사동형만

로 모든 농가 호환
가능한 결속력을 자

다. 부부동반으로 2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회원은 94년도에 동기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時論 教育改革의 方向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인간을 「理性의 動物」이라 규정하였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理性」이란 특성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西洋의 思想은 「理性」의 변천사란 말을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 시대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행해 왔

制度·관념의 틀에서 大變革 이뤄야

나는 여기서 인간을 「教育的 動物」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언하고 싶지 않다. 아무런 영리한 동물이라도 우리 인간처럼 학교라는 것을 세워놓고 교사와의 화해의 응모, 거기다 채까지 만을 놓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적 동전의 실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선생과 학생의 삶, 그리고 학생과의 화해, 그리고 개학과 소의 화해, 또 개의 화해와 소의 화해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교육, 이것야말로 인간



李 明 賢 64년文理大卒 母校教授

이 해답을 알 수 있다. 교육제도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여러가지 변수를 변화시켜 따라이렇게 혹은 저렇게 변화되어 왔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文明의 轉換의 分岐點에 놓여 있는 듯이 보인다. 지금까지의 산업문명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명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의 문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각종의 제도의 틀, 생각의 틀에 「大變革」을 외치고 있다. 한마디로 옛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 있다. 우리의 教育改革의 필요

巨視的 次元서 과감한 탈피 바람직 새教育觀 開放化된 「열린 큰 空間」 되게 雇傭構造 · 需要 고려한 眼目 가져야

리는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적어도 크게 보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자질과 취미와 소망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착수해야 하는 교육개혁의 大役은 이런 과정에서 근원적이며 또 全面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교육개혁이란 지난날이 평등에서 신도되어온 大學入試次元의 제도변화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할 교육개혁의 일면의 사형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핵심사항일 수 없다. 교육개혁은 비단 오늘날 한국인의 관습사가 아니다. 전세계의 개개인은 나라와 국민들의 集團의 관습사가 되어 있다. 그것은 새 문명을 준비하고 大役勳의 中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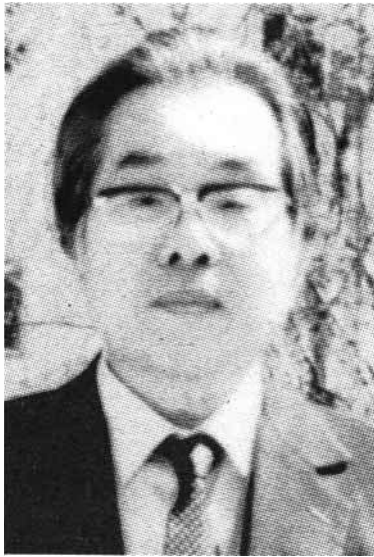
의 과제가 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百年大計라는 말을 인용하자면 내면에서 사실 교육이 얼마나 國家의 發展요소가 되는가에 대해 그렇게 신중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이유를 말할 것도 없이 그 문명과 文明가 文明의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의 단적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장기적 사업이다. 이렇듯 오늘 한국이 당면한 교육개혁의 根本方向은 새 문명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나는 그러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 몇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새 교육의 틀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인간의 實存狀態에 적합한도록 짜여져야 한다. 쉽게 말해서 우

教育觀·教育裝置·社會雇傭構造 차원이 동시에 병행돼야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교육받을 사람을 이 살아가게 될 세상,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들을 지닌 「장은」을 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폐쇄적 삶을 살아왔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이러한 작은 울타리를 완전히 제거되는 양상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울타리로 되어 버린 세상이 되는 날, 우리의 우리의 생 각과 삶의 관습과 제도는 엄청난 變革을 겪어야 한다. 그러한 「열린 큰 空間」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교육이 양으로 우리 교육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세 계는 지식과 정보의 힘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의 장치가 새롭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적 장치의 설계를 위해서는 우리의 發想法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舊式 생각 가지고 새 질을 설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새로운 교육개혁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육觀, 教育裝置, 社會의 雇傭構造, 세 차원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그것은 어느 일부 계층의 參與만으로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교육개혁은 「그러기에」 國家改革의 巨視的 次元에서 수행될 수 있을 때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일인즉 특 신중하며 서둘러 말아야 한다는 옛 고를 우리에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실천적 法理論을 구현한

金箕斗 선생님



한국 刑事法學·犯罪學界의 태두

公私 구별 엄격, 淸貧樂道 일관

글 朴在允 <59년 法大卒 國民大 法大교수>

金箕斗 선생님의 본적지는 全南 求禮이다. 光州에서 출생하시어 光州高普를 졸업하고 日本으로 건너가 松江高普를 다니다. 1952년 東京帝國大學에서 法學을 修學하셨다. 해방후 귀국하여 光州醫大에 잠깐 계시다가 法務部

1. 글 朴在允 <59년 法大卒 國民大 法大교수>
있어서도 이론적인 刑法解釋 學보다는 실천적인 刑法學에 내지 刑事政策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즉, 선생님은 일찍부터 범죄문제를 법학자, 형사전문가, 보지 않고 사회학, 실정법, 관습에 서 보아,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刑法이나 刑罰制度만으로는 力不足이라고 생각하고 형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의 원인을 實證科

범죄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당시 考試官에 흥미를 잃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필자는 선생님의 刑事政策 강의에 魅了된 끝에 考試를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 후 선생님의 門下生이 되어 오늘날까지 부끄럽지 않다. 선생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

필자의 在學 당시 法大에는 이미 학생들의 연구모임이 우대 하나로서 刑事法學 연구하는 IRIS회가 있었으나 이 모임은 1958년 10월로 理論法學을 중시하여 주로 살피고 있었으며 1958년에 필자를 비롯하여 金箕斗 선생님의 영입을 받고 몇몇 학생들의 「犯罪問題研究會」라는 새로운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세미하고 장엄한 논의를 개설했던가 하면 전국소년원 실태조사 등을 하기도 했고 매스컴과 범죄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매스컴과 범죄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시아 재단의 원조를 얻어 당시 4

오셨는데, 늦게나마 몇해 전에 「한국형사정책연구회」의 창립원장도 범죄문제연구소회의 회의를 비롯하여 선생님의 遺囑을 받든 後學들의 노력의 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창립추진위원회 때 당시 丁海昌 초대원장이 굳이 저동이 불평한 金箕斗 선생님을 모셔오게 하여 추사를 하시게 한 것 또한 이와 같은 연유에서였을 것이다.

선생님은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UN회의에 한국대표로 수차 참석하거나 UN 아시아아프리카법률위원회에서 강의를 하신 등 국제적인 활동에 참가하시는데 한 편 국내에서도 非行靑少年의 養育兄弟妹 및 少年犯의 養育兄弟妹 및 少年犯의 養育兄弟妹 및 少年犯의 養育兄弟妹

金箕斗 선생님은 法學者이면서도 사회비평가 내지 개성론자로서 그 예리한 관찰력과 秀麗한 문장력으로써 신문 잡지 등에 많은 수필을 발표하셨는데, 그 분야는 청소년문제와 교육문제, 범죄문제와 법률정제문제에서부터 여성문제와 유형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였다. 선생님의 에세이集 「한국의 태어난 행복」(뒤에 秀才論으로 題名)이 바깥으로 1966년까지 발표된 수필들을 모아 간행된 것이다.

이런 영문도 선생님의 교제대상으로는 자연히 文人作家 예술가들이 많았고 선생님의 人氣는 法學界에서 보나 女性界에서 더 높았을 것이다. 선생님은 한가할 때 명종의 다반을 순회하시기를 즐겼는데, 가끔 필자와 동행했을 때 다반담을 나누고, 밝은 환대란 실로 근사한 것이었다.

필자의 法學시절에 선생님은 가끔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사모님의 유명한 「남도의승려보」만도 요리를 해서 오면 선생님이 「이것이 우리들의 法學자다운 食生活이다.」 하시곤 하셨다. 선생님은 자신을 「한 사람」이라 불렀는데, 그 인성과 함께 인생 자체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기시며 길이 있을 수 없는 스승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法務官을 거쳐 1952년에 서울大學校 法大교수로 취임한 후 1986년 停年退任하시다가 27년간 母校에 근무하면서 刑法 刑事訴訟法 刑事政策을 연구하고 가르치셨다.

선생님은 學問研究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것을 더 추구하였으며,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길 것을 항상 강조하셨다. 그리고 刑法의 연구에

學的으로 구명하여 합리적인 범죄대처를 수립, 실시하는 임무를 강조하셨다. 1965년부터 1년 간 미국 코네티컷 주립 대학교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돌아온 후 1967년 South of Criminality」를 「刑事學原理」로 題名하여 번역 출판하였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범죄학이론을 소개하신 이래 강의에서는 물론 학술지나 신문 잡지에 발표된 수 많은 論說들 통하여 범죄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1967년 10월 19일 59세의 나이로

만했던 기일이 지금도 새롭다. 예컨대 선생님은 詐欺罪에 관한 강의를 하던 날 교단에 올라서서 학생들에게 「나도 모른다!」 하고 겨우 말문을 열고는 또 강의를 내다보는데 「나도 모른다!」 하는 말이 시들었다. 그때 비로소 「타이를 기만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라는 것을 취재하여 「우리의 현실을 한 학기를 고단 후 실감했던 학생들의 4학년 1학기에 선생님의 부러 형사정책 강의를 들이면서 그 熱講에 몰입한 한 편

대 일간신문 사회면에서 게재된 수년간의 범죄기사를 모두 스캔하여 이를 집적, 양적으로 분석한 방법으로 수형되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선생님이 法大學長으로서 연구실에 자주 들릴 수가 없었으므로 선생님의 연구실이 학회의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되기도 했었다. 범죄문제 연구회는 그 뒤 수년간 활동을 계속하였다. IRIS회와 동행하여 오늘날의 형사법학회로 계승 발전되고 있거나 선생님의 遺囑을 계승하여 형사법학을 지도하면서 기호성을 때마디 범죄문제에 관한 국가적 연구기관으로서 「범죄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주장해

내 1959년에 처음 刑法 刑事訴訟法 교과서는 법학도의 수필적인 必讀書로 정평을 받아 그 후 版을 거듭해 왔으며, 고시관전자의 발표한 論文 論說 중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었고 고등고시와 원인으로 주로 형사소송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였다. 그런데 선생님의 형사소송법에서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人權保護를 특히 중시하여 당사자주의의 강화, 변호인의 확대, 강제수사의 제한을 力說하고 人權이 무시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개탄해 마지않으셨다. 1961년 UN주최의 국제인권회의에 한

생님은 私의으로는 자유롭고 부끄러웠으나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엄격했다. 한 번은 필자가 선생님의 서재에서 우연히 고등고시 합격자 사정서류를 보게 되어 무심코 들추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고, 法大學長으로 재직중에는 필자에게 학실출입을 금하셨는데, 나중에 司法大學院長으로 계실 때는 학위논문들을 도와드리느라 일로 자주 대학원생실에 갔던 기억이 있다. 法大학장실에 가본 기억은 별로 생생하지 않을 정도이다.

별다른 욕심을 안 가진 것 같았던 선생님은 경제적으로도 언제나 收入 支出이 넉넉한 穩固한 經濟를 維持하셨다. 1966년 10월 19일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선생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채로운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채로운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채로운 사람이었다.

同窓會館 利用안내

會館 5층에 마련된 「冠岳홀」을 各種行事場으로 貸與하고 있습니다. 3백여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大小宴會에 알맞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結婚禮式場으로 많이 活用되고 있사오니 많은 利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週末이나 公休日에는 혼잡하오니 가능하면 平日을 利用해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豫約 및 問議 : 702-2233

21세기를 여는 서울大人

頂上을 달린다

○... 각 분야에서 世界頂上에 ...○
○... 우뚝선 서울大人의 활약이 ...○
○... 주목되고 있어 話題가 되고 ...○
○... 있다. 그 가운데 세분을 모셔 ...○
○... 그동안 이룩한 업적을 살펴 ...○
○... 보는 읽을거리를 마련했다. ...○

생명과학에서 遺傳子가蛋白質을 만드는 과정 및 전달리보핵산의 3次구조를 규명해 生命科學 발전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노벨賞 후보로 떠오른 金聖浩(60) 文理大卒 美버클리大교수(은세계적 명성과 실험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이다.

生命科學界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生命現象研究분야에서 細胞內 物質들의構造와 機能이 본질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분자수



▲金星浩동문

주에서의 遺傳現象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는데,蛋白質 합성과정 에 遺傳子가 갖는 暗號의

情報에 따라 20개 아미노酸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하여 실제 합성을 담당하는 리보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傳達리보핵酸(tRNA)」의 구조와 기

그大學에서 物理化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MIT大學 생물학과에서 「博士後課程(Post-Doc)」을 알렌산디치教授 밑에서 리보솜의 페널티를

의 연구가 세계 生命科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연구대상이며 生命科學의 큰 숙제였다.

金聖浩동문은 美교조버

리보핵酸연구로 生命과학 앞당겨

국제學術賞으로 세계적 권위 인정

던 10여개의 우수한 실험실 사람들을 이끌게 만 들었는데, 이 업적은 生命現象에서 遺傳子가蛋白質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物質의 分子水準을 이

達리보핵酸의 3次構造가 실험하는데에서도 알 수 있다.

또 金聖浩동문은 사람의 癌細胞중에서 20%, 특히腸癌이나 肝臟癌細胞에서 50

해하는데 획기적인 성과였 다.

% 이상으로 발전되는 癌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Ras」라는 비정상적인蛋白質의 立體構造를 밝힌 큰 성과를 올렸다.

金聖浩동문은 70년 피츠버그 結晶學 學會대회에서 「Structure」, 87년 美아나지성의 「로렌스賞」, 88년 美교조의 神經科學研究賞, 89년 「다카마쓰公主賞」, 93년 한국방송공사의 「제1회 해외동포선」 學術部門을 수상했는데, 노벨 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나 이러한 사정이 극복된 것은 母校 農學科를 졸업하고 美미시간州立大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안한 상황에서 보라이 러워지자 韓僑들이新品種을 직접 갖고 다녔다. 피부색이 달라 의아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 결과 4배 이상의 수확량을 얻어내는 대성공을 이

는 韓相麒동문(60) 文理大卒은 아프리카에 21세기의 희망을 열어주고 있다.

해결을 위해 나이지리아에 설치한 IITA에서 모집한 연구원 자격으로 건너간 계기로 카사바의 耐病性을 높여 개발에 매달렸던 것이다. 이 실험의 갖가지 풀을 채집, 교배시켜 母本을 생산해 보기도 했고 모본의 遺傳因子를 在來種에 주입시켜 갖가지品種을 만들어 보기를 수십차례, 실패를 거듭한 3년여만에 병에 강한 우량종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나 당시 政情이 불안한 상황에서 보라이 러워지자 韓僑들이新品種을 직접 갖고 다녔다. 피부색이 달라 의아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 결과 4배 이상의 수확량을 얻어내는 대성공을 이

柳達永(36) 水原高農卒前母校教授가 강조했던 개척자 정신과 동료교수의 격려에 힘입었던 바가 컸다. 이로부터 12년동안 아프리카식량문제 해결에 전념하면서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나이지리아 제2도시 이바단에 20km 떨어진 10만명의 이키레 마을에서 僑長으로 추대

그는 새로운 개발한品種을 손쉽게 보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를 수반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韓僑들은 지난 85년에 연 農學術植物院의 終身會員이 되었고 86년 UNICEF는 카사바를 대표적인 아프리카 救濟食品으로 선정, 대대적인 보급운동이 뒤따랐던 것이다.

이러한 TDX는 우리의 수출주력상품으로 東南亞과 中東지역의 물량이고 東歐圈으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中國과 러시아에까지 활발히 진출

아프리카 食糧難 해결한 선구자

카사바 品種개발으로 酋長에 추대



▲韓相麒동문

이 아프리카의 食糧問題

를 택한 데에는 그의 스승

韓僑들은 美를 필러財團이 아프리카의 食糧問題

아에 전념할 때 이미 英韓 브리지와 버밍엄대로부터 교환교수로 초빙을 받았고 있는 나 생경한 미지의 세계인 나이지리아를 택한 데에는 그의 스승

나후원 아프리카에서 22년간 食糧問題해결을 위한 헌신으로 그 공로가 인정돼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노벨賞 후보로 떠오른

받은 韓相麒동문(IITA 국제개발농학연구소所長)이 지난 71년부터 아프리카에 뛰어들어 카사바의 개발을 통해 물려받은 끝에 고집스런 안정인 병균에 의한 질병을 극복시키고 저항성이 강한 품종인 「TMS307」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韓僑들은 美를 필러財團이 아프리카의 食糧問題

全電子교환기 개발로 先進기술

정보통신분야 획기적 개개로 각광



▲徐廷旭동문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이 다.

이처럼 한국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여 년이 없는 徐동문은 科學技術研究院(KIST)의 科學技術處長과 韓國政府의 黃條勳政勳章을 비롯, 國民勳章 冬相章, 鐵塔産業勳章 등을 수상했는데, 현재 체신부사와 電波通信技術開發推進協議會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지난 93년 6월 당시 遞信部 尹東潤장관의 移動通信新規事業者 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 개발 95년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디지털移動通信 기술이 95년말쯤이면 常用化가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여 년이 없는 徐동문은 科學技術研究院(KIST)의 科學技術處長과 韓國政府의 黃條勳政勳章을 비롯, 國民勳章 冬相章, 鐵塔産業勳章 등을 수상했는데, 현재 체신부사와 電波通信技術開發推進協議會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全電子交換기 개발로 先進기술 정보통신분야 획기적 개개로 각광

한편 지난 93년 6월 당시 遞信部 尹東潤장관의 移動通信新規事業者 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 개발 95년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디지털移動通信 기술이 95년말쯤이면 常用化가 예상되기 때문에

全電子交換기 개발로 先進기술 정보통신분야 획기적 개개로 각광

한편 지난 93년 6월 당시 遞信部 尹東潤장관의 移動通信新規事業者 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 개발 95년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디지털移動通信 기술이 95년말쯤이면 常用化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93년 6월 당시 遞信部 尹東潤장관의 移動通信新規事業者 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 개발 95년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디지털移動通信 기술이 95년말쯤이면 常用化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93년 6월 당시 遞信部 尹東潤장관의 移動通信新規事業者 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 개발 95년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디지털移動通信 기술이 95년말쯤이면 常用化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93년 6월 당시 遞信部 尹東潤장관의 移動通信新規事業者 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 개발 95년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디지털移動通信 기술이 95년말쯤이면 常用化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달 3일 母校 工科大学 學長에 취임한 鮮于仲皓學長은 취임소감에 대해 『사학이나 국가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그 교육의 건이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現代를 生存을 건 국제 경쟁시대, 기술경쟁시대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母校의 工大教育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위치와 수

新任 工大學長 鮮于仲皓 동문



각계각층에 대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74년부터 모교교수로

경영능력 탁월 補職경험이 발탁 요인

母校향한 관심 유도, 효율적 운영할 터

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鮮于仲皓(1919. 1. 19)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고, 모교와의 인연이 30여년의 세월을 넘나들고 있다. 1968년 이공계 1968년 6월

부터 81년까지 모교 교무처 부처장을 지냈으며 89년부터는 모교 중등교육과 장학관을 맡아 학생들의 교육발달을 위한 토대 닦아온 공로가 인정되어 補職경험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 외에도 대학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74년부터 모교교수로 재직해 왔고, 모교와의 인연이 30여년의 세월을 넘나들고 있다. 1968년 이공계 1968년 6월

量的 팽창보다 質的 발전으로 國際化 이룩

제가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鮮于學長은 이번 취임에 즈음하여 『대입인신생활을 위한 토대 닦아온 공로가 인정되어 補職경험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 외에도 대학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74년부터 모교교수로 재직해 왔고, 모교와의 인연이 30여년의 세월을 넘나들고 있다. 1968년 이공계 1968년 6월

- ▲文尙鎬(55년) 師大卒. 培材大教授. 本會理事. 11월 18일 江大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孔英一(61년) 文大卒. 慶熙大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金榮瑞(55년) 醫大卒. 慶熙大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張友鉉(56년) 醫大卒. 母校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柳光烈(56년) 師大卒. 自由詩協名譽會長. 本會理事.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趙南賢(61년) 法大卒. 前서울地方報勸導處長.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李種昕(61년) 齒大卒. 母校大卒. 母校大卒.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安秉萬(64년) 法大卒. 外國語大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司空奎(64년) 南大卒. 世界經濟研究所理事.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孫亮(66년) 南大卒. 前三養金屬專務.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李炳勳(66년) 醫大卒. 母校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姜明求(79년) 大學院卒. 母校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鄭炳璇(64년) 大學院卒. 前世宗大學長.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皮虎庚(83년) 音大卒. 巴(민중사)를 최근 파견했다.
- ▲金鳳(79년) 音大卒. 景園大教授. 本會理事.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金宗殖(57년) 文理大卒. 母校教授.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權聖基(35년) 法大卒. 前農林部次官.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 ▲劉元東(51년) 文理大卒. 國史學專任. 11월 18일 18일로 마교원장 산하 사회과학대학 원장으로 위촉됐다.

▲柳駿(41년) 醫大卒. 前嶺南大總長. 大韓藥理協會顧問. 20일 나환자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印度사카르 다달 사르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제5회 국제간디賞」을受賞.
▲趙炳華(43년) 師大卒. 詩人. 20일 서울경동중(株)고려원 8층 「지혜의 샘」에서 열린 제5회 문화강좌에서 「나의 문화의 길」을 발표.
▲李大源(45년) 法大卒. 弘益大名譽教授. 20일 대한민국제총협회에서 제26대 회장에 選任.
▲朴景華(49년) 醫大卒. 仁川市立醫院에서 院長으로 任命.
▲朴景華(49년) 醫大卒. 仁川市立醫院에서 院長으로 任命.

延世大教授. 20일 한국프로페셔널국제회의장에서 후학들을 위하여 「회갑기념특집」 「인문사상과 인문사」 「말의 만남」 「말의 말」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講演.
▲權五琦(57년) 法大卒. 東亞日報社長. 20일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에서 「金亨培(57년) 法大卒. 江原日報社長」을 追悼.
▲金明浩(57년) 商大卒. 韓國銀行總務. 2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94년도 경제전망과 통화정책방향」이란 주제로 特講.

▲孫荷模(57년) 商大卒. 韓國戰略經營會.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祥根(57년) 商大卒. 前美銀行長.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吳有邦(63년) 法大卒. 惟民獎學會理事長.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成紀雄(65년) 工大卒. 前大平.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金學俊(65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金榮彬(65년) 法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泰秀(67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張虎男(67년) 工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金寶雄(68년) 工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信雨(91년) 普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曹東佑(80년) 工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信雨(91년) 普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高在君(55년) 農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紹永(51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高炳鈺(58년) 工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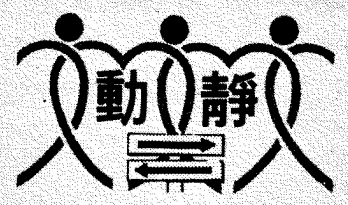
▲李祥根(57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吳有邦(63년) 法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金正煥(6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朴淳永(65년) 保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金正煥(6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金正煥(6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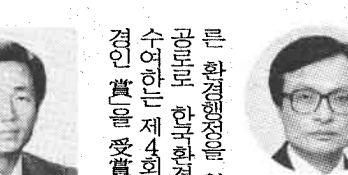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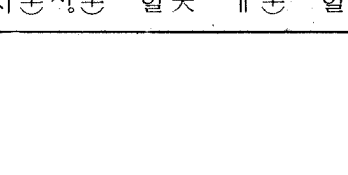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이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히 爲에게 알리기 爲에 마련된 欄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 電話로 通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회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702) 2233~5
FAX: (703) 0755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夢準(75년) 商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李海瓊(72년) 文大卒. 20일 서울을 訪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동맹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選任.

죽(동)이 주축이 돼 기업
을 마련, 여성회관을 건립
코자 했으나 여성회관측의

1906년 10월경 발
행.同年 11월 5일 발기
총회에서 제헌 국회를 구성할
후 3월 5일 2차 전각
장교회의를 가진 회합을
他學科大의 비하 장교회의로
의 수가 정정하게 되어있
다 장교회의는 제헌회가
되다가 유력파들이 깨닫고
장교회의 대신에 스승과
이와 개개인의 장교회의
조금씩은 다름이다



▲女性同門會 밥기대회를 마치고

이러한 결심을 맺게 된 데에는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다.

同會의 발족추진위원장 박永姬(58년·수학교육과

그러나 여성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마침내 93년 5월 25일 롯데호텔 크리

개 발전해 나가 사회봉사
의 모교지원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또 師
範大 출신들이만 敎職에
몸담고 있는 경향이 많아
社會와 敎育界에 '고고한
있는 교육자의 목소리'가

유부나 고을천에서 교유 행정기로서 활동하고 있 니 교유에 관계한 동부의 수가 총회원수의 절반가량 이 된다. 그외에도 延廉淑 (33) (주) 유부나 나 柱仙 (34) (주) 유부나 유부나 세 간과 延廉淑의 회에서	수시로 열린다. 현재 科別 수모임이 조전파 同期別 科別로 친분한사를 하고 있으며 기금회도 5백여만 원이 모인 상태이다. 趙素 玉 총무(주) 사할사 대표고 呂 간과 延廉淑의 회에서
--	---

申貴澈(62년卒) 申泰祐(62년卒) 시교을연(71원) ▲事業理事·金炫善(55년卒)李寧子(60년卒) ▲涉外理事·金鍾任(88년卒) 玄葉喜(57년卒)

자적인 힘을 기르는 데 전
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는 師大同窓會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

지 母校支援 사회봉사

桂仙(64년卒) 대원군(大元君)의
실장) ▲財務: 金德姬(33
년卒) 시공음(司空陰) ▲
總務: 趙惠玉(63년卒) 서울
사대부고 교감) ▲組織職
事: 李福蓮(55년卒) 吳瑞

사회복지사의 동원회 활동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성운동회는 독

女性의

임모아 活性化다짐

▲顧問·趙鏞樂(56년卒)
 변호산)李季順(52년卒)前
 정무제(2호)金鳳姬(55
 년卒)한영고고장)▲副
 會長：李麗英(55년卒)朴
 永姬(58년卒)▲監事：金

스탈린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개최해 모든 여성노동자의
함께 보람과 기쁨을 나누
었다. 初代會長으로 선출
된 金榮義(무한여고 교장)
보좌기인 찬양대장이 인사말을

있던 것이 특징이다.

모란차가 확인된 同會의 동문들은 총 2백70여명이다.

그중 崔溪淑(56년卒)도 북양군(北陽郡)金貴南(63年卒)영

파나 법원을 거쳐서 합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적지 않다.

同會의 창설목적은 「상호간의 친목과 신부상을 도모하여母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문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더 많은 동물이 관상을 갖고 열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임 探訪

英語英文學科는 母校가
弘益人間的 創學理念()로
설립된 당시부터 基幹學科
중 하나로, 그 규모에 있어
서나 역사에 있어서 명
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을 신구하고 중추學科이
다.

무엇이 중상이 되어 晩時
之歎은 있나 〔英語英文
學科同窓會〕를 爲하여
모은 友朋의 聚會에 歡
迎과 支拂을 받나 〔아
는 友朋의 聚會〕

국제화
각

맛취 새로운
분야서 능력

인정 눈부신 활약

한국의인도 李梓勝은 신원(新元)을
 들을 비롯하여 鄭奎雄은 신원(新元)을
 鄭奎雄은 신원(新元)을, 陳昌福은
 제부차장, 金昌福은 金
 鎮국제부차장, 金昌福은 金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官界를 살펴보면 官界

국제화 맞춰 새로운 면모 모색

각 분야서 능력인정 눈부신 활약

한국의 전쟁과 산업은 민족적 수난을 겪으면서도母校가 아니라 대한교육의 총본산으로서, 영재교육의 중심적 기관으로 公認되고 발전하면서 영인영무학과 도영인의 명목하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물어보면 영인학과인의 열의를 사도 이제 반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대학의 변화에 조금도 변함없이

[illegible]

中華民國 97 年 11 月 15 日 第 100 期	Alumni News	第 100 期 1993. 11. 15
主編 陳建興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務委員 張文雄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輯部 1
顧問 陳建興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顧問 張文雄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輯部 2
顧問 陳建興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顧問 張文雄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輯部 3
顧問 陳建興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顧問 張文雄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輯部 4
顧問 陳建興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顧問 張文雄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輯部 5
顧問 陳建興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顧問 張文雄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輯部 6
顧問 陳建興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顧問 張文雄 行政院政務處 秘書長室主任		編輯部 7

개학을 앞둔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회전하고 있을까?	3월 21
자녀의 학교 교육 질을	13
자녀의 영어회화능력, 영어 회화 교육의 중요성	14
자녀의 학습능력, 학습 방법	13
자녀의 학습능력, 학습	18
자녀의 성적	9 ~ 28
자녀의 성적	8
자녀의 성적, 성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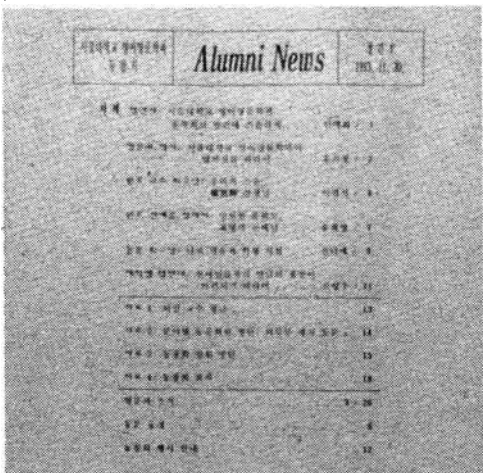
學堂에서 해인 주한 사신
 나영이 倭年退任한 후 몇
 箇月간 거기 停居한 後
 하긴 한편 倭國의 倭將
 을 수시로 拜見하고 있
 는 일과 주소를 變히기
 모 倭國의 주소를 만
 드스런 일을 하고 있다. 92
 年과 93年의 倭國에
 수첩이 발간되었도 93년에
 是英語英文學科 同窓會誌

教育界의 大變遷한 時
 을 보아 倭國의 大政
 變과 共和政體로 倭國의
 大政 變에 對한 影響의 巨
 大함을 알 수 있는 事實이
 있는가 하면 서울이나
 比露에서 전과 각 종교
 學科에서 教授者의 變
 更이 倭國의 變인 줄
 알 수 있다.

이 밖의 문화와 예술분야

스즈키(鈴木) 林有植 野中(野中)
코대사(申基鎭) (駐米代
本) 姜信盛(駐駐米代本
等) 임금이 열거할 수 없었
말씀 많은 두뇌의 수 많은
신활력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인과 동등한 수
약 2천명의 달하고 있는
며 유럽과美洲에 해외
거주 혹은 직장을 갖고
는 동양에도 상당수가 된다



▲지난해 참간된 英文學科同窓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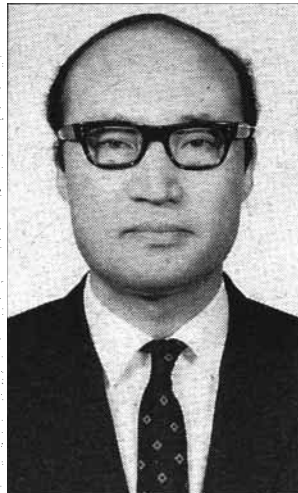
대교수 金容權(1909~1984) 한양
대교수 金本湖(1909~1984) 이화
대교수 具本湖(1909~1984) 이화
동창회의 발전은 이들

英文學科同窓會

대교수 金容權(1909~1984) 한양
대교수 金本湖(1909~1984) 이화
대교수 具本湖(1909~1984) 이화
동창회의 발전은 이들

三佛金元龍先生 往生극락하소서

——[追慕辭] 金彩潤 (母校 大學院長)



나의 恩師 想自선생은
실로 많은 高士들과 同류
하였다. 오랫동안 선생을
고학·미술사의 대가 三佛
선생도 그런 맥락에서 내
가 알게 된 高士의 한 분이
다. 내가 三佛선생을 처음
본 것은 1950년대末
나의 助教 시절이다. 그로
부터 선생이 往生하기까지
(1993년 11월 14일) 近
40년간 나는 가담하지 않
게도 선생으로부터 실로 분
사위 痛飲한 일도 있다.

에 넘치는 대인을 받아왔
다. 三佛선생은 일찍부터
나를 믿어 주었다. 공작
신변의 일들을 살펴 주신
가 하면 만화한 모습을 내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
기도 하였다. 1960년대
에는 나와 몇 차례 나의
항랑까지 가서 나의 家兄
등, 그곳 친지들과 발을
모신 나는 일찍부터 그런
高士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복을 누렸다. 고

이러 지명된 사학자인 高
先生을 당대의 우리 나라
수필가의 창으로 꼽아왔
다. 그 두 분의 수필은 종
은 대조를 이루었다. 후자는
정확하고 체통을 지키
는 양식의 글이라면 전자
는 생소한 대로, 붓 가는
대로 쓴 글자 그대로의 수
필이며, 발가벗은 민중의
글이다. 三佛선생의 그리
한 詩情은 金海宗선생의
나 누웠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겨워서 앉았도라
고. 이 모두가 往生 10여
일전의 일로서 얼마나 슬
직하고 여윌고 절절한
가.

文學·미술에도 一家이룬 선비 非凡한 人品·업적 귀감될 만

三佛大士詩에 和答한 가
시 絶筆이라고 할 三佛自
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對酒高唱, 對女狂
言, 對書走讀, 其論浮雲
無一可取.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일일실을
창고 尋雪臺主人이 법상에
앉아서 맞이하는 신세에게
그렇게 있어 평화게 누르
니가 先生曰, 손님대하는
禮로 일어나 앉을 아느
니

사실한 眞實을 갖다 주셨
다. 이 모두가 어쨌든 契
機로부터 불과 24시간내
이루어진 일로서 시간을
아끼는 선생의 일생정신의
일면을 잘 나타낸 것이다.
三佛선생에게는 오직 學
究만이 있을 뿐 명예 尊物
적이었다. 교수 재직중
에 말로 구설을 들이지
보지는 그만두는 말을 미
리 확고하고서야 말았다.

우리 나라의 주요 文化財
고 선생의 손길이 닿지 않
은 곳이 없나 선생은 參
考用 아닌 商品價値있는 문
화재는 아예 소유하려 하
지 않았다.

三佛선생은 후신없는 平
生을 보내고 往生極樂하였
다. 지닌 바 에너지를完
全燃焼하고, 당신의 肉身
까지도 연소하고.
선생의 非凡한 人品과
배어난 業績은 우리들 後
學的 繼繼으로 길이 길이
빛날 것이다.

齒醫學연구에 50년

누구나 다 나이를 먹
고 과거를 회상해 보면 자
기가 마땅히 틀렸을 만큼

名譽教授 칼럼

하계 한 일도 많았지만 부
족하고 모자라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 생각하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한
번 그 세월이 어떤 그대로
마음에 드는 일을 다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다.
50년간 교직생활을 하



李 春 根
(41년 京城齒專卒·齒大동창회장)

새理論에 호기심 못버려 그리워 少壯학자 수시로 격려

면서 새로운 통찰이나 연
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호기심과 의욕이 크게 발
동하는지 모른다. 어떤 때
는 한회가 끝나고 거꾸로

경한 편 못하고 큰국비행
기 안에서 후회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새로운
무제가 나를 향해 내 마음
으로 정열하고 근면할 때

이해가 곤란할 때도 없지
않다. 그럴 때는 더욱더 호
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이것은 내가 50년간 學
究생활을 하면서 나의 성
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더 앞서는 학부적인 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것
을 의식하지 않는다.
오늘 각종 직장에서의 정
년퇴직이나 은퇴하는 사람
들에게 사회에서 중요한
무제가 되고 있지만 젊은
이들에게 임무를 더 많이
맡겨 주는 것이 우리 사
회의 당면한 과제가 아닐
까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의 이러한
왕년의 길을 열어야 하면
새로운 분야의 개척 또한
이미 개척된 것들의 미비
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충
부한 시간과 노력이 있다
고 믿는다. 대학에서는 대
학원 위주의 학제로서 많
은 면에서 학제제를
교육해야 하지만 이들이 장
차 자기 자신이 학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年會費내주신분

理事: 12월12일 ~ 1월12일
一般: 12월12일 ~ 1월12일

人名 밑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
度입니다.

會長團

▲부회장 崔鍾賢 50만원
▲부회장 鄭夢準 50만원
▲부회장 金在淳 20만원
▲감사 李基雄 30만원

冠岳會

▲이사 李聖秀 30만원

常任理事

▲沈鍾燮 50만원
▲張禮準 20만원
▲李光魯 20만원
▲崔浩 10만원

理事

◇工科大學

▲金成成 50만원
▲金永哲 50만원
▲金佑植 50만원
▲朴成圭 50만원
▲吳世哲 50만원
▲吳昌錫 50만원
▲李庚相 50만원
▲李恩賢 50만원
▲李亨道 50만원
▲崔康熙 50만원
▲崔壯宇 50만원

◇農科大學

▲金祥鎬 50만원
▲劉元相 50만원
▲李揆亨 50만원
▲鄭潤煥 50만원
▲金玉珉 50만원
▲金洪喆 50만원

◇文科大學

▲金玉珉 50만원
▲金洪喆 50만원
▲金玉珉 50만원
▲金洪喆 50만원
▲金玉珉 50만원
▲金洪喆 50만원

◇商科大學

▲南正祐 50만원
▲文孔訓 50만원
▲朴家慶 50만원
▲朴炳烈 50만원
▲朴宗漢 50만원
▲李敏雄 50만원
▲李佑永 50만원
▲李鍾基 50만원
▲趙澤英 50만원
▲崔然宗 50만원

◇醫科大學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音樂大學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行政大學院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環境大學院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人文大學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社會大學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大學院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會費납부에 솔선하는 精誠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會費內譯 및 지로番號 —

一般會費/ 1만원	會費入金 지로번호
理事/ 5만원	및 郵便對替 번호
常任理事/ 20만원	지로번호
監事/ 30만원	7500875
副會長/ 50만원	우편대체 번호
會長/ 5백만원	010017-31-0621565

◇經營大學院

▲姜明圭 50만원
▲金奎鉉 50만원
▲權寧天 50만원
▲金仙大 50만원
▲梁承現 50만원
▲李東宰 50만원

◇保健大學院

▲朴聖培 50만원
▲李亮載 50만원
▲文鍾洙 50만원
▲李洪均 50만원

◇司法大學院

▲李洪均 50만원
▲李洪均 50만원
▲李洪均 50만원
▲李洪均 50만원

◇新聞大學院

▲林采郁 50만원
▲李洪均 50만원
▲李洪均 50만원
▲李洪均 50만원

◇自然大學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金鍾基 50만원

◇家政大學

▲이진선 50만원
▲최연선 50만원
▲최연선 50만원
▲최연선 50만원

◇看護大學

▲장내원 50만원
▲김선희 50만원
▲김선희 50만원
▲김선희 50만원

◇美術大學

▲김정애 50만원
▲박종대 50만원
▲안재기 50만원
▲조명환 50만원

◇法科大學

▲서도자 50만원
▲서도자 50만원
▲서도자 50만원
▲서도자 50만원

送金手数料は 同窓會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로로入金되지 않는 지역은 각 우체국 대체구좌 010017-31-0621565(崔主鎬)로 送金하시면 됩니다.

소식

은 환자 치료와 치료를 위해 면회객의 면회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병원측은 "현재 하루초음파 3천명 이상의 면회객들이 몰려 환자 대기료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교육백서 10년내 教授 倍增 계획도

출연키로 약속했다.
姜희장은 母校 최고경영
자과정 28기 수료생으로서
올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모교병원 면회제한
오후 5시後 한차례
모교 병동(病室) 韓萬靑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漢陽都城)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관아(官衙)가 있었다. 관아는 지방의 행정기관으로서, 수령(守令)이 관공서(官公署)를 중심으로 하여 관아문(官衙門)을 열고, 관아벽(官衙壁)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었다.

관아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민방위(民防衛)의 기능을 지녔던 관아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아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관아는 수령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하여 관아문을 열고, 관아벽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었다.

관아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민방위(民防衛)의 기능을 지녔던 관아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아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관아는 수령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하여 관아문을 열고, 관아벽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었다.

自然大學

로 했다.

자문대는 이같이 내야를 대하본부측과 협의, 95학년도부터 학부개편과 석사과정의 무시한천형을 시행할 계획이며 연구소 설립과 야생동물연구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94학년도 모교 입학결
자의 평균점수는 1천천

만점에 이븐계 8백 40점
자연계 7백 90점으로 집계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인들을 추진해온 주전사가
가 지난 12월 14일 개초본
체신부 전산망 조정위원회
의 최종 심의에서 통과됨
으로써 올해 4월경 도인
설치계획 예정이다.

藏書基金 총2백50억원

송영로 각분야의 전문서적
과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등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自然大公開강좌

지난 14일,母校에 따르면 自然科學大에서는「21세기의 主役: 자연과학의 현상과 展望」이란 主題로 내달 17~18일 양일간 문과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1회 자연과학 公開講座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數學, 物理學, 生物學 등 자연과학의 이양으로 발전한 未來社會의 모습이 소개된다. 이 행사는 대학이 과학홍보에 직접 참여하기로는 처음있는 일로서 그 내용을 보면 ▲小粒子로부터宇宙까지 ▲遺傳學의 현상과 미래 ▲글자꼴 디자인과 數學 ▲惱와 化學 ▲外界의 행운계를 찾아서 ▲海洋환경의 이론과 保存 등 6개 주제별로 해당전

新入生 4천9백2명 뽑아

今年入試합격권 人文系 8백40점

94학년도 모교 입학결
자의 평균점수는 1천점
공교수가 감당하게 되며
참가자들이 실력을 천문대
등 연구시설을 견학할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만점에 8백40점
 자연제 7백90점으로 집계
 됐다.
 특히 올해 모교 입시에
 선본고자가 단 한명
 우해 자연제 합계자
 평균이 50
 점이나 떨어졌
 수

한 II와 과학과목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모교는 이날 응대에서 학생권외 등 3명을 실격시켰다. 미달을 이루도 불합격처리, 정원보다 3명 적은 4천9백2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노사공동 90년부터
전산화물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 93년 8월
토탈시스템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70여만 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있다.

14억 상당의 不動產母校에 寄託
尹全秀씨 夫婦 42年 木手로 번돈



70대老夫婦가 木手일
로 평생을 모은 재산 14
억원을 母校에 기탁, 가
슴 뭉클한話題를 모았
다. 尹全秀(77·서울 북
아현동)씨와 李三洛(73
부부가 지난 4월 14일

가난 때문에 소학교마저 중퇴, 13세때부터 일한 인 밑에서 목수일을 배워 23살때 서대문 충정로에 목공소를 차린 뒤 지난 82년까지 42년간 목수일을 하면서 저축했

씨 夫婦는 그 동안 모든
재산으로 餘生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늘 못
배운 것을 간직해오면서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 뜻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 全재

한데에 감사드린다면서 『기타자의 뜻을 기려 화염선장이 우수하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 萬同門이 즐겨 읽는 同窓會報에 廣告로 企業을 PR합니다

서울大學校同窓會報 편집실

저희 〈서울大學校同窓會報〉는 21 萬同門의 親睦과 結束을 다지고 母校와의 紐帶를 더욱 긴밀히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매월 定期的으로 4 萬余部씩 발행하고 있는 會紙입니다. 서울大人의 代辯紙로 自負하고 있는 〈同窓會報〉는 점점 그 영향력이 높아져갈 뿐더러 廣告에 대한 效果面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同窓會발전을 위해 <同窓會報>에 廣告로 도움을 주신
관계企業체와 社主 그리고 同門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企業 PR 로 저희 〈同窓會報〉를 活用하시려는 同門께서는 직접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廣告에 대한 高見을 들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廣告問議電話 702-2233 (代)

